

1997. 12. 10

“아무 일이라도 주세요”

주부, IMF시대 생활고 못이겨 취업 발동동

“어머니 또는 아내로만 안주할 수는 없다.”

가장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주부들도 취업 일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애만 태우기 일쑤다.

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인력은 행. 30대로 보이는 주부가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난달에 남편의 상여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정된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아무개(34·관악구 신림6동)씨는 일자리를 찾아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했다. 상여금이 들어오지 않자 가게부를 파놓고 줄일 구석을 찾았지만 해결책이 없었다. 100만원 안팎의 월급에서 은행 대출금 이자 등을 빼고 나면 생활비로 15만원 정도 남았다. 남편의 용돈도 주지 않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생활하기가 너무 팍팍했다.

그러나 취업 게시판을 둘러보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 듯 이내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흐른다.

서울인력은행 주부 담당 안정희(30)씨는 “10월까지의 하루에 주부 5~10명이 직장을 구해달라고 왔는데,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대기업들이 쓰러지면서부터는 하루 15~2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더욱 절박하게 일자리를 구한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아무 일이라도 달라’고 통사정을 한다는 것이다.

서울 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통계를 보면 요즘 들어 30~40대 주부의 구직 건수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3~4배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한달에 50명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150~200명 정도라는 것이다.

강동구청 취업알선센터도 월 30건이던 주부 구직신청이 지난달에는 48건으로 늘어나더니 이달 들어서는 벌써 20건이나 들어왔다. 이곳에서는 ‘중산층 주부’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아무개(45)씨도 남편의 월급이 300만원 이상 되는 중산층 주부다.

“살림이 너무 어려워 나라도 벌어야

겠다 싶어 나왔어요.” 남편 월급으로 가게를 꾸려왔지만 지난해 딸이 대학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업을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남편이 말은 안하지만 ‘정리해고’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제는 ‘월급받는 일자리’를 찾아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이 끝내 안되면 면허가 있으니 택시라도 몰까 생각해요. 늙은 아줌마가 주책을 부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광진구청 민원봉사과 취업안내 담당 직원 김진민(26)씨는 “미혼 여성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지만 주부는 취업이 거의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인력은행에서 만난 최아무개(30)씨는 3살배기와 갓 백일 지난 아이를 위해서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인데 … 모질더라도 참아야죠.” 최씨의 눈 자위가 붉어졌다. 구본준 김보협 기자